

Josep Torrellas

CAPSULE INTRODUCTION
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1995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UIUC)의 박사과정에 입학했을 때 Josep Torrellas 교수를 처음 보았다. Torrellas 교수가 조교수로 부임한지 3년이 되었을 때였다. 저녁이었는데 학생같이 보이고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Torrellas 교수의 그룹과 내 박사논문 지도교수의 그룹이 건물의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이후로 자주 보게 되었고, 그의 컴퓨터 구조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어도 컴퓨터 구조와 내가 전공한 컴파일러는 사촌 간이라 친하게 지냈다. Torrellas 교수는 항상 저녁을 먹은 후에는 편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사무실에 나왔다. 미혼이고 매일 아침 일곱시 경에 출근하여 연구에 몰두하다가 새벽 한두시 경에 퇴근하였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거의 항상 연구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은 예외였다. 그 이유를 내가 박사를 받을 즈음에 알게 되었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던 시기의 어느 금요일 저녁에 Torrellas 교수가 나에게 춤(dance) 추러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같이 가면 춤 잘 추는 한국 여학생 다섯 명을 소개 시켜 주겠다고 했다. 그 여학생들을 자기가 잘 알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다고. 춤 잘 추는 여학생 다섯명이라... 미혼이라 솔깃했지만, 춤에 소질이 없어 가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에 사라지는 이유가 춤이었구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Torrellas 교수와 2년 정도 같이 연구를 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처음에 불가능하게 보이고 아주 어렵게 보이는 문제라도 진득하게 끝까지 파고 들면(아침 일곱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매일, 금요일 저녁은 제외) 해답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Torrellas 교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Torrellas 교수는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구조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유명한 Stanford DASH machine과 UIUC의 Cedar machine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memory hierarchy, coherence protocol, thread-level speculation을 포함한 멀티프로세서 컴퓨터 구조에 기여한 공로로 IEEE와 ACM의 fellow로 선정되었다. 모국인 스페인에서 온 postdoc과 결혼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이재진, 2011년 9월